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2005년 영국 아마추어 축구 경기에서 앤디 웨인이라는 심판이 주심을 맡았다. 그는 아마추어 리그 심판으로 '그라운드의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그런데 그날 경기는 달랐다. 그는 전반전 내내 호루라기를 불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 후반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또다시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리고는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측 감독과 관객들은 어느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줄지 잔뜩 긴장했다. 레드카드를 받는 팀이 불리해질 것은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레드카드를 내밀고는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주심이 자신을 퇴장시킨 것이다.

후에 그는 "나같이 행동한 선수가 있다면 응당 레드카드를 받았을 것이다. 나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사과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다. 아내가 중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한데다, 경기 전날에는 새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경기 당일에는 절친한 친구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경기를 심판할 수 없어서 스스로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경기장을 떠난 것이다.

[제시문 (나)]

나는 배우들이 가슴에 깊은 슬픔을 안은 채 무대에 나서는 일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방금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한 소식을 듣고도 연기자는 오페라 <파그리아치>에서처럼 관객을 웃기는 광대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슬픔으로 가슴이 찢기는 듯한 너털웃음'이다. 그러면서 그는 연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인도 시인 타고르는 일상의 일들을 하인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타고르에게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하인이 다른 날보다 한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 타고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화가 났다. 그는 하인에게 어떻게 야단치고 벌을 줄까를 생각했다. 세 시간이 지나자 타고르는 이제 여러 말 않고 해고시켜서 내쫓기로 마음을 먹었다.

마침내 그 하인이 나타났다. 때는 한낮이었다. ㉡하인은 말 한마디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스럽게 일을 시작했다. 그는 주인의 옷을 가져다주고,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방안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다. 타고르는 그 거동을 지켜보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다 그만 두고 나가!" 그러나 하인은 아무 소리도 못들은 것처럼 계속 비질을 하고 나서 잠시 후에 조용히 말하더라는 것이다. "내 작은 딸이 오후저녁에 죽었습니다."

인생의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제시문 (가)에서 앤디 웨인이 보인 ㉠의 행동과 제시문 (나)에서 타고르의 하인이 보인 ㉡의 행동은 두 사람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치관은 무엇인가?
2. 제시문 (가)의 앤디 웨인이 보인 행동과 제시문 (나)의 타고르의 하인이 보인 행동 중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2개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정보사회의 태양이 지고 있다. 인류는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지금은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벌써 또 다른 사회의 출현을 알리는 변화의 지표들이 감지되고 있다.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바로 그것이다.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199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래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6~8개의 문화지역으로 구분된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화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가장 높은 산업생산 능력을 지닌 국가가 승리했다. 또 걸프전쟁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가져다 준 정보처리가 승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미래의 전쟁은 ‘콘텐츠 전쟁(contents war)’이 될 것이다. 정보의 독점은 끝이 났고, 인터넷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의 전쟁에서는 이들 6~8개의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 다른 윤리와 이데올로기가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이며, 이것들을 적에게 팔 수 있는 문화를 가진 지역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제시문 (나)]

오늘날은 그야말로 ‘이야기의 홍수 시대’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의 홍수 속에 휘둘리고, 감동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며,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수많은 부분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변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바이어트는 “이야기는 호홉이나 혈액순환처럼 인간 본질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들이 씻고 마시는 물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얹혀 있다. 어떤 물은 왕의 고질적인 피부병을 낫게 한 물이며, 또 어떤 물은 인류 탄생 이전 태고적 공기가 스며 있는 빙하로 만든 물이기도 하듯, 투명한 물에도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우리들은 이제 상품의 기능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리기 위해 돈을 지불하며, 그 이야기에 얹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그 이야기로부터 얻을 감동을 위해 시간을 들인다. 또 그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처럼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전달한다. 수많은 고전이나 스토리들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성에 호소하며, 또 심지어는 이야기 하나로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상대를 설득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다.

수시 2차 면접 (2012. 12. 1. 오후)

<언어>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밑줄 친 ‘드립 소사이어티’는 어떤 사회인지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2. 제시문 (나)에서 밑줄 친 ‘이야기의 힘’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시문에서 찾아 밝히고, 이에 대해 자신의 직·간접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오.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Genius, in the popular conception, is inextricably tied up with precocity*—doing something truly creative, we're inclined to think, requires the freshness and exuberance* and energy of youth. In some creative forms, like lyric poetry, the importance of precocity has hardened into an iron law. "Poets peak young," the creativity researcher James Kaufman maintains. According to Howard Gardner, a leading authority on creativity, "Lyric poetry is a domain where talent is discovered early, burns brightly, and then peters out* at an early age."

A few years ago, an economist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named David Galenson decided to find out whether this assumption about creativity was true. He looked through forty-seven major poetry anthologies* published since 1980 and counted the poems that appear most frequently. Some people, of course, would quarrel with the notion that literary merit can be quantified. But Galenson simply wanted to poll a broad cross-section of literary scholars about which poems they felt were the most important in the American canon.* The top eleven were chosen, and it turned out that they were composed at the ages of twenty-three, forty-one, forty-eight, forty, twenty-nine, thirty, thirty, twenty-eight, thirty-eight, forty-two, and fifty-nine, respectively. There is no evidence, Galenson concluded, for the notion that lyric poetry is a young person's game. Some poets do their best work at the beginning of their careers. Others do their best work decades later.

The same is true of art. Picasso, for example, was the incandescent* prodigy. His career as a serious artist began with a masterpiece, "Evocation: The Burial of Casagemas," produced at age twenty. In short order, he painted many of the greatest works of his career—including "Les Femmes d'Alger," at the age of twenty-six. Cézanne, however, didn't fit our usual ideas about genius perfectly. The array of masterpieces in the Cézanne room at the Musée d'Orsay in Paris were all painted at the end of his career. Galenson did a simple economic analysis, tabulating the prices paid at auction for paintings by Picasso and Cézanne with the ages at which they created those works. A painting done by Picasso in his mid-twenties was worth, he found, an average of four times as much as a painting done in his sixties. For Cézanne, the opposite was true. The paintings he created in his mid-sixties were valued fifteen times as highly as the paintings he created as a young man. The freshness, exuberance, and energy of youth did little for Cézanne. He was a late bloomer—and for some reason in our accounting of genius and creativity we have forgotten to make sense of the Cézannes of the world.

*precocity 조숙함 *exuberance 활력, 원기 *peter out 점차 소멸하다
*anthology 명시 선집 *canon 명작선 *incandescent 빛나는

<문제 1> 경제학자 David Galenson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분석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며, 이것이 창의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문제 2> 밑줄 친 ㉢the Cézannes of the world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지 말해보시오.

이름: _____

수험번호: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power of stereotypes, scientists had long figured, lay in their ability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person holding the stereotype. If you think women are ninnies* ruled by hormonal swings, you don't name them CEO. But five years ago, Stanford University psychologist Claude Steele showed something else: it is the targets of a stereotype whose behavior is most powerfully affected by it. A stereotype that pervades the culture the way "ditzy* blondes" and "forgetful seniors" do makes people painfully aware of how society views them—so painfully aware, in fact, that knowledge of the stereotype can affect how well they do on intellectual and other tasks. Now, with half a decade of additional research under their belts, psychologists are discovering the power of stereotypes not only over blacks, but over women, members of ethnic minorities, and the elderly, too.

In their seminal* study, Steele and her colleagues focused on how the threat posed by stereotypes affects African Americans. They reasoned that whenever black students take on an intellectual task, like an SAT, they face the prospect of confirming widely held suspicions about their brainpower. This threat, the psychologists suspected, might interfere with performance. To test this hunch, Steele and her colleagues gave 44 Stanford undergraduates questions from the verbal part of the tough Graduate Record Exam.* One group was asked, right before the test, to indicate their year in school, age, major, and other information. The other group answered all that, as well as one final question: what is your race? The results were sobering. "Just listing their race undermined the black students' performance," says Steele, making them score significantly worse than all whites. But the performance of black students who were not explicitly reminded of their race equaled that of whites, found the scientists.

Can @the pernicious* effects of stereotypes be vanquished? If no one reminds you of a negative stereotype, your performance doesn't suffer. It can actually improve if instead you think of a positive stereotype. Deception helps, too: if women are told that a difficult math test reveals no gender differences, they perform as well as men. Otherwise, women score much lower. ㉞While such manipulations may weaken the brutal power of stereotypes, at the end of the day they remain manipulations. But until stereotypes fade away, that may be the best we can hope for.

*ninny 바보, *ditzy 멍청한, *seminal 중요한, 영향력이 큰

*Graduate Record Exam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 *pernicious 유해한, 파괴적인

<문제 1> 윗글에는 밑줄 친 @the pernicious effects of stereotypes를 초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언급되어 있다.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문제 2> 밑줄 친 ㉞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